

“불교, 국민의 삶 윤택하게 돕는다”

푸틴 대통령, 부리아트 불교 사원 방문서 언급

“러시아는 유럽에서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유일한 나라다.”

러시아연방 순방에 나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첫 순방지인 부리아트 공화국에서 이같이 말해 주목된다.

〈시베리안 타임즈(Siberian Times)〉지에 따르면, 부리아트 공화국의 수도 울란우데(Ulan-Udae)의 외곽에 있는 이볼긴스키 사원(Ivolginsky Datsan)을 찾은 푸틴 대통령은 “연방정부는 시베리아에서 불교의 역사성과 그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연방정부는 불교가 더욱 성장해 부리아트 공화국, 나아가 러시아연방의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베리안 타임즈〉지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볼긴스키 사원의 스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판디토 캄보(Pandito Khambo) 스님과 깊은 친분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푸틴은 “표트르 대제의 딸, 엘리자베스 황후에 의해 공인된 불교는 러시아 황실의 대관식을 집전한 정도로 발전해 나갔지만,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쇠퇴했다고 들었다”며 “그 와중에서도 ‘자비와 연민’의 도리로 러시아의 고난기를 함께 한 자리에 있어 국민들의 삶에 공헌한 점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했다.



부리아트 공화국 수도 울란우데(Ulan-Udae)의 이볼긴스키 사원(Ivolginsky Datsan)을 배경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 맨 앞줄 중앙)이 사원의 스님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볼긴스키 사원(Ivolginsky Datsan)은 1945년에 지어진 이후 러시아의 공산정권을 견뎌낸 유일한 불교사원으로 널리 알려졌다. 부리아트 공화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연방을 대표하는 사원으로, 법당과 도서관은 물론 러시아연방의 유일한 ‘불교대학’ 등이 있다. 이 대학에서는 철학과 티베트 전통의술 등이 연구·전승되고 있다.

한편 이볼긴스키의 담바 아유셰예프(Damba Ayusheyev) 스님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불교계는 불교대학의 신설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불

교대학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교대학 재학 중 대 집중을 연기해 출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베리안 타임즈〉지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연방의 대학 재학 기간 동안 군대 징집을 연기해주는 반면, 불교대학의 재학생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불교는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돕는다’는 고귀한 사명을 충분히 실천하고 있다”면서 “시베리아 불교계의 요구를 충분히 들었고, 러시아 연방정부는 민족과 종교의 벽을 넘어 화합의 전통을 만들어 가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볼긴스키 사원 측의 요청을 수용했다.

〈시베리안 타임즈〉에 의하면, 러시아 불교계의 주류는 티베트불교로 볼 수 있으며, 최근 들어 상좌부와 대승부 불교도 성장하고 있다. 특히 아무르(Amur) 주, 하바롭스크(Khabarovsk) 지방, 투바(Tuva) 공화국, 칼미크(Kalmyk) 공화국, 부리아트(Buryatia) 공화국, 치타(Chita) 주에 집중되어 있던 러시아 불교계가 모스크바(Moskva),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 등지에서도 눈에 띄는 포교를 전개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중국불교협회 60주년 맞아

베이징서 지난달 26일 기념식



위정성(Yu Zhengsheng, 중국 중앙정치국, 사진 왼쪽 맨 앞) 위원장과 류옌둥(Liu Yandong, 중화인민공화국, 사진 왼쪽 두번째) 국무위원이 중국불교협회 회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60주년 기념식장’에 등단하고 있다.

중국불교협회(Buddhist Association of China)가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신민보(xinmin.cn)〉지는 지난달 27일 “중국불교협회가 7월 26일 베이징에서 중앙정부 최고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60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고 보도했다

위정성(Yu Zhengsheng,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장은 “불교는 중국의 개방·개혁의 염원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교계의 그러한 노력은 중국의 경제 개발은 물론 사회 안전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 위원장은 “중앙정부는 불교의 가르침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는 한편 중국인들이 보다 좋은 삶을 살아가고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낼기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옌둥(Liu Yandong,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은 “중국불교협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이에 힘입어 사회화 진(進)과 경제력(力)이 신장될기 기원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경사스러운 구름



중 푸젠성 관세음보살상의 버섯군

로벌타임즈(globaltimes.cn)는 지난달 28일 “푸젠성 난징군에 있는 철탈안사(chetouan temple)에 버섯 군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찰 측은 “올해는 사찰 주변의 습도가 매우 높아, 보살상의 손과 가슴 부위에서 버섯이 자생하게 된 것 같다”며 “사찰의 스님들은 버섯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를 달리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즈〉지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은 이 버섯 군을 ‘경사스러운 구름(auspicious clouds)’으로 부르고, 관세음보살상을 진전하기 위해 사찰을 찾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명상하면 맥주가 나오는 네덜란드의 자판기. 명상과 맥주로 피로를 잊어보라는 마케팅 아이디어가 재미있다.

명상하면 맥주 무료로 드립니다

독특한 마케팅으로 고객 사로잡는 네덜란드 맥주회사

명상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돼 독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의 한 맥주회사가 맥주를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을 택한 것. 안스테르담에 공짜 맥주 자판기를 설치하고 3분간 명상을 하는 사람에게 맥주를 주는 것이다.

이벤트는 현대인들이 일상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혼자 있는 평화로운 시간을 통해 풀어보라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광고회사 측은 “잠시도 가만있지 못 하는 요즘 사람들을 보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며 “실제없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

고 게임에 몰두해 있는 이들을 위해 잠깐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조용히 3분간 명상을 한 후 맥주를 마시며 일상을 다시 의미해 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맥주를 마시려면 버튼을 누른 후 3분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명상에 잠겨 있으면 된다. 도중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탈락이다.

실제 이벤트에 참여한 이들을 찍은 영상이 유튜브에 등록돼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 동영상에는 이제로는 명상에 참여하려는 이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배현진 기자

美 매사추세츠, 불교공원묘지 생긴다

티안 앤 사원, 47.5에이커에 화장터 추모관 등 설치

美 매사추세츠 주 동남부의 도시, 애틀버로(Attleboro)에 첫 ‘불교 공원 묘지’가 들어선다.

〈더선크로니클(The Sun Chronicle)〉지는 7월 26일 “애틀버로 시의회가 티안 앤 사원(Tian Ann Temple)의 토지 개발 계획을 승인, 조닝(Zoning)지역에 불교 공원 묘지가 들어설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티안 앤 사원은 지난 6월 부동산개발사인 아더 케이트로부터 조닝의

주거단지과 산업단지 경계선에 위치한 터버(Thurber)에 47.5에이커의 부지를 매입하고, 애틀버로 시의회에 ‘불교 공원 묘지 개발안’을 제출했다.

티안 앤 사원의 주지 에드워드 로 스님은 “시의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매입부지 중 17에이커에만 화장터와 추모관을 건축하고, 나머지 부지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세계 경매시장, 불교미술품 ‘강세’

낙찰가가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되는 15C 금동불상 〈사진〉이 9월 16일 뉴욕 분행 경매에 출품된다.

불상은 1403~1424년 사이에 중국에서 제작된 관세음보살상으로 명나라 영락제 시대에 주조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경매 시장에서 불교 미술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10일에는 영국 헨리 알드리지 지앤선(Henry Aldridge & Sons) 경매에서 티베트 불교미술품이 우리 돈으로 2억 4천만원인 21만 달러에 낙찰됐는가 하면, 프랭크 마셜(Frank Marshall) 경매에서 관음상이 비슷한 금액인 2억 6천만원에 팔렸다.

배현진 기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젊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낳는 여인에게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된 달여서 (1달보 60봉 두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인생의 지혜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해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나 지렁이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력,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밀이 든 허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다)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속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에 의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별력이 생깁니다.

패 식용유에 마가목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실험사례”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할 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제조원 : 구암식품

■ 농협 : 227027-51-090791(예금주 : 남궁성근) · 식품제조업 : 대구 북제00619호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더라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설법·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회의진행법 등 실습
-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 기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 강의 : 종합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 ◆ 개인지도, 출장강의 - 직접 상담 후 결정
- ◆ 장소 : 본 연구원 강의실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교육 : 우불 김철회 박사 < 직접지도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설법연구회 원장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3가 16 고영빌딩 국민은행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2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